

양계 산업 불황과 일본의 대책

■포커스

1971년은 한국의 양계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해가 될 것이다. 저난가, 육가의 폭락, 그리고 사료가격의 인상등으로 고난의 해였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본지 71년 1월호에서 71년도의 전망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경고가 되어 있고 역시 72년 1월호에 최창해(서울 농업대)교수와, 오세정(건국대) 교수에 의하여 원인이 지적된 바 있고 양계관계 각 단체들에 의하여 각기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원인분석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양계불황에 대처하여 각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상황을 소개하여 우리의 대책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해 8월 일본에서 개최된 “계란가격 대책 전국 대표자회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도 이와 비슷한 모임이 근래에 활발히 열리고 있으며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모임이 있기까지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도 저난가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왔었고 지난 4월에는 『전국 양계인 대회』가 개최되어 결속을 다졌고, 지역별로 전국 각지에서 『양계 위기 돌파대회』 또는 『양계인 대회』 등을 열어 대책의 협의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체인 일본 양계인협회가 집대성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지방대표 100여명은 각각 채택한 결의사항을 가지고 모였다.

이 날 주최측인 일본양계협회에서 각지의 양계대회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대책들을 총괄하여 의제로 제안한 내용은

1. 계란의 유통과 난가형성의 합리화

2. 액란가공의 추진
3. 액란의 축산진흥사업단에 의한 매상제도의 확립
4. 계란의 학교급식의 제도화
5. 액란의 수입규제
6. 난가 안정기금 제도의 확대
7. 규모의 확대, 증식의 억제
8. 출하조정기능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냉장·보관시설 등이 있다.

일본 양계협회측은 제안설명에서

『현재의 양계인은 단계적인 구조의 변동이란 심각한 상황속에서 절실하게 문제의 해결을 강요당하고 있으나 이들 여러 난제들에 대하여 양계인 자신들은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으며 이미 발족된 바 있는 액란회사 <국가가 4억원을 투자하고 있음>에 대하여 액란의 매상을 강조하고 학교급식의 문제는 현재 전국 28,000개의 학교에서 1,100만명의 아동이 급식을 받고 있어 연간 약 60,000톤의 수요가 전망되는데 금후의 수요개척의 일환책으로 다방면으로 계란의 적극적인 급식이용을 요청하고 또 당면한 난가 안정시책으로서 보진(補填) 준비제도를 설치할 것을 국가에 요망한다는 등 제 대책을 제기하였다. 이외에 각 지방 대표자들로 부터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을 간추리면 『오늘날의 난가 결정은 전국 판매농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가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수(荷受)기관의 사기와 같은 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 ◆..... 양계불황은 단지 우리만이 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심.....◆
- ◆.....각한 불경기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려 안.....◆
- ◆.....간힘을 쓰고 있다. 그들의 자세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다.◆

송 정 택
(한국 가금 협회 전무이사)

본다.』

즉 생산자는 매일의 난가에 대하여 일체의 조건도 붙이지 못하는 위탁판매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후의 난가 안정대책에 있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며 안정대책으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격을 검토하는 공식기관인 “난가 심의회”를 설치하던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생산자 독자적인 하수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과 『급격한 생산과잉에 대하여 보다 엄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며 생산자본에 의한 대형양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등인데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결론은 얻지 못하고, 대자본에 의한 대형양계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계란은 1일 집란, 1일 출하를 절대 철적으로 하고 가격은 동경(東京)의 난가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으나 그 핵심인 동경자체가 대형양계의 지방 출하금지에 의하여 동경으로 집중 출하됨으로 각 지방의 조정출하가 가격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유통합리화라 하지만 그것이 단적(端的)인 방법이라면 오히려 역(逆)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난가안정에 대하여 전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입장에서 공적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하나하나의 비판적인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황타개에 대처하는데 있어 일본의 양계인들이 적극적이며 진지

한 자세와 대담한 제안들과 불합리하고 역조(逆調)적인 제요소를 스스로가 가름하여 개선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계인의 지금까지의 자세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면이 많았다. 난가 안정대책으로써 여러가지 수단이 강구된다 치더라도 현 단계에 있어 양계생산자 자신이 생산조절기능을 갖지 못하고 가격형성에 과연 개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 종래의 양계단체조직은 구체적인 이익유도(利益誘導)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성을 약화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 자신이 이렇게 밖에서만 문제점들을 찾지 않고 오히려 양계인 스스로가 자체내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체제와 결속 아래에서만 제반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하에 조직강화와 양계인의 등록사업의 추진이 논의되었다 한다. 이미 미국등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안들이 검토된 모양이나 대체적으로 양계단체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되 전국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다.

그 추진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A : 계병예방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방에서는 그 예방회의 회원등록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도 계병예방협회와 같이 계병을 중심으로 한 양계인

■ 포커스

의 독자적인 조직체를 만들어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과 출하에까지 연결시키는 등록협회를 발전시킨다.

B : 제란가격안정기금의 현재 가입율 35~40%를 70~80%까지 높여 그 기금가입을 바탕으로 등록제로 하고 난가 안정의 강력한 초석으로 한다.

C : A나 B안에는 관계없이 생산자의 독자적인 조직체로써 등록사업을 추진시킨다.

D : 등록추진을 위한 새로운 등록협회적인 존재는 불필요하다. 획정인 연대의식의 강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피차의 경영내용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속시켜 나가는 조직위원회적인 성격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등등이 주요 골자였다.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생산자들은 각 하수기관에 대하여 최저 kg 당 175원(圓)의 지치(持値)출하를 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즉 이지치운동이란 출하가격을 생산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75원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일종의 단합인데 생산원가를 고려한 「난가확보운동」이라고 해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우리는 양계로서 돈을 벌고자 하지는 않는다. 단지 안심하고 양계를 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최저난가를 절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도 문제점은 있다. 즉 안팔리는 부분의 잔량처리…(이 부분은 전량 생산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그 처리방안은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 난가가 지나치게 상승될 때의 문제점등이다(물론 이러한 경우는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들은 이 운동의 목적관철을 위하여 구체적인 운동방안을 71년말까지 관계 단체간에 협의하기로 했고 동시에 사양규모의 확대 억제, 증식 억제 운동등을 전개하여 72년 1~3월 사이에는 지치출하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관계단체의 출하계획을 책정하고 4~5월에는 구체적인 실시대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토록하여 이 회의 결정에 따라 5월 이후에는 난가 확보출하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전

도엔 여러가지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고 파란곡절이 예상되지만 그들의 용기와 과감성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걸쳐 행정기관에 진정서나 건의서등을 제출하였지만, 아무 효력도 없었고 결국 그들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부딪쳐 해결하자는데 이 모임의 커다란 의의가 있는것 같다.

물론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치에도 의존하고 행정부에도 의존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만일 그렇게 하여서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때는 결국 우리는 돌아서서 위정자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은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혼자서 안되는 문제라면 같이 모여 의논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각 양계인은 조그만 자기 양계장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고 높게 우리의 경영을 걱정해야 될 때인 것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은 이번 불황의 원인은 내 양계장에서 부터 시작된 것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과 우리 자신의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 연말 생산조절의 수단으로 일정기간동안 전국 부화장의 문을 닫는다는데에 부화협회, 가금협회, 사료협회 그리고 농림부 당국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 12월 31일 늦게까지 열기된 의논을 되풀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에선 비난도 했겠고 걱정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난보다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필자는 믿고 싶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나 어느 때고 이것은 다른 방법에 의한 생산조절에 단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싫더라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시국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는데 우리 양계업계도 우리 나름대로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불필요한 생산을 배제한다는 『생산조절』 바로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겠다. □□